

기지개 켜는 '2017 한국 법률시장'

메이저 로펌 주도...부티크 선전 주목

중간지대 갈수록 약화...판도 변화 가속화

경기가 본격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2017년의 법률시장은 조 단위의 M&A가 여러 건 이루어지고, 대형 IPO와 함께 기업들이 미뤄 두었던 채권발행이 재개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새 정책 추진 의지가 확고한 공정거래와 노동 등의 분야에선 관련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폐수사 등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형사 분야에선 일종의 특수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로펌들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시장이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함께 로펌들의 동남아 교두보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제중재 변호사들도 분쟁지역이 확대되며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을 넘어 중동과 남미, 인도 등 전 세계로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대형, 중소, 부티크 다중구조 확인

한국 로펌업계는 대형로펌과 중소 로펌, 부티크 등이 제각각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며 시장을 개척하는 다중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리걸타임즈가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분야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메이저 위주의 독과점 상태가 확인되는 가운데 분야별로 전문성으로 무장한 부티크들이 이름을 올리는 양극화된 모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형로펌과 부티크가 법률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전문성이라고 할 때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간지대는 갈수록 선택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걸타임즈의 분석이다.

아울러 대형로펌들 사이에서도 법률소비자들의 선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런 추세로 전문성 경쟁 등이 심화될 경우 로펌들간의 위상 변화, 로펌업계의 판도 변화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사내변호사들의 의견과 로펌별 업무 실적, 리걸타임즈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 등을 종합해 한국 로펌들의 올 업무수행 결과를 14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M&A 및 회사법

올 한국 M&A 시장은 3분기 누적 기준 거래규모가 35조 원에 이르는 등 2016년에 비해 다소 활기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래규모 증가가 삼성전자의 하판 인수, 20조원대인 베인캐피탈-SK하이닉스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등 대규모 거래로 인한 것이어서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북핵 문제와 함께 대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하여 M&A를 자제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 등이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제, 관망 분위기

반면 삼성그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M&A 시도와 구조조정 관련 M&A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PEF에서 출자약정액을 소진하기 위한 M&A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경기도 점차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에 따라 다시 투자를 개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정책적인 불확실성 등에 의해 SK나 CJ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의 전형적인 규모 확대나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핵심사업 강화나 비핵심사업 매각 또는 안정적인 지분구조 확보 등을 위한 인수합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국내외 PEF의 바이아웃 투자나 세컨더리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토종 PEF인 MBK, IMM PE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으나, 베인캐피탈, KKR, 어피니티, TPG 등 글로벌 PEF들의 약진이 한층 돋보인 한해였다.

향후 M&A 시장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사드 갈등 해소, 북핵 문제 등 국내외 정세의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M&A 시장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러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 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IT업계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산업, 금융 관련 핀테크 산업, 제조, 유통 관련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M&A가 시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평, KCL, 10위권

블룸버그나 머저마켓 등의 리그테이블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M&A 시장은 김앤장부터 시작되는 주요 로펌들이 상위 자리를 석권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3분기 누적 거래건수 기준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가 순서대로 많은 거래에 자문했다. 이어 지평, KCL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한국 M&A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 거래금액 기준으론, 김앤장, 세종, 태평양, 광장, 율촌의 순서로 많은 거래에 자문했다.

M&A 및 회사법	
Band 1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Band 2	벡서스, 지평, KCL, KL 파트너스, 화우
Band 3	세한, 양현, 한결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이하 같음)

“

국내외 PEF의 바이아웃 투자나 세컨더리 투자 큰 폭으로 증가 MBK 등 토종 PEF 투자 활발 글로벌 PEF 약진 한층 돋보여

”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베인캐피탈-SK하이닉스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유니레버가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PIA 컨소시엄, 이상록 회장이 보유한 카버코리아 지분을 인수한 거래 등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외국 로펌들이 자문에 참여하며 Nagashima Ohno & Tsunematsu, 룩스앤그레이, 알렌앤오베리, 링크레이터스 등도 리그테이블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리걸타임즈가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M&A 분야 선호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앤장이 M&A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장 사건을 맡기고 싶은 로펌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엔 광장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중소 로펌 중에선 티와이엔파트너스, 법무법인 현, 벡서스, 한결 등이 사내변호사들이 선택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앤장의 경우 M&A 자문 1등 로펌답게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베인캐피탈의 카버코리아 매각(3조원), MBK 파트너스의 대성산업가스 인수(1조 2000억원), KKR의 LS오토모티브, LS엠트론 사업부 인수(1조원), 더블유게임즈와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미국 Doubledown Interactive 인수(9436억원), 베인캐피탈의 휴젤 인수(9274억원)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거래에 자문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은 법률실사와 M&A 계약서 작성 등 좁은 의미의 M&A 자문을 넘어 기업의 인수, 통합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조세, 인사·노무, 공정거래, 환경, 지식재산권 등과 인수금융 등 M&A에 관련된 제반 분야와 인수 이후의 원활한 기업 통합,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각적·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아웃바운드 거래 등 크로스보더 거래

고 있다. 윤희웅, 손도일, 신영수, 은성욱, 김기영, 이진국, 박재현, 신현화, 황규상, 김건, 김준형, 이수연 변호사와 이태혁, 최충인, 강명석 미국변호사 등이 주인공으로, 율촌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응대를 제공, 높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율촌 M&A팀, 40대 멤버 주축

미래에셋대우를 대리한 네이버와의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교환거래, IMM의 우리은행 지분 인수, 현대커머셜의 현대카드 지분 인수, 미래에셋생명보험의 PCA생명보험 지분 인수 등이 율촌이 올해 수행한 주요 M&A 거래로 소개된다.

화우는 차헬스케어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상장된 의료전문기업 SMG의 지분을 인수하고, 미래에셋이 설립한 PEF 등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와 YG스포츠가 네이버와 YG 조성 펀드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대 골프장 예약 사이트인 X골프를 운영하는 그린웍스를 인수한 거래를 수행했다. 또 트레이블메이트 주식 양수도 거래, 다이버시(Diversey)코리아의 구주 매각 및 전 세계 다이버시 계열사의 사업 매각,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이 PEF를 설립하여 이랜드월드로부터 유명 제화 브랜드인 (주)엘칸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 등이 화우가 올해 지문한 주요 M&A 거래로, 화우는 특히 “공정거래그룹, 조세그룹, 노동팀 등과 협업하여 각 산업별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적인 M&A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화우의 해외 현지 법인과 세계 유수의 로펌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이승기, 강영호, 장황립, 박정연, 김가영 변호사 등이 화우의 M&A팀을 구성하고 있는 맹장들이다.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김상준, 정철, 채희석, 이태현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지평 M&A팀은 올해 PEF를 대리한 M&A 거래를 특히 많이 수행했다. 키스톤PE가 설립한 PEF를 대리하여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주)디섹 인수와 관련해 자문하고, 키스톤PE와 송현PE가 설립한 PEF 및 투자조합을 대리하여 (주)디젠의 신주 및 구주 취득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센트로이드PE가 설립한 PEF를 대리한 싱가포르 SPC를 통한 대상회사 투자 관련 자문, 베이사이드 PE를 대리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웰리브 인수도 지평 변호사들의 작품이다. 또 SK(주)를 대리하여 (주)LG로부터 LG실트론 주식 51%를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했다.

지평은 최근 KCL과 양현 등에서도 근무한 신민 변호사를 영입해 M&A와 일반 회사법 분야의 지문역량을 강화했다.

최원현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KCL도 M&A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전통의 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신영준 미국변호사와 함께 이상덕, 박우호, 김종재, 박상화 변호사 등이 포진한 가운데 김재홍 변호사와 김경훈 미국변호사, 이석현, 노재열, 신혜성, 전재우 변호사로 이어지고 있다.

KCL, 합리적 비용의 맞춤형 자문 강점

편의점 CU 등을 운영하는 보광그룹 계열사인 BGF네트웍스로부터 BGF핀링크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에서 인수자인 한국전자금융 측에 자문하고, 아이디스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로 소형 프린터 등을 제조하는 빅솔론의 지분 40.66%를 997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서도 인수자인 아이디스홀딩스에 자문했다. KCIC가 창원장재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인수자 측에 자문한 곳도 KCL로, 박우호 변호사는 “고객들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KCL은 더블, 인베스트조선, 머저마켓, 톰슨로이터, 블룸버그 등 국내외 전문기관의 M&A 리그테이블 집계에서 꾸준히 7~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M&A 분야에선 중소 로펌, 부티크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경영권 분쟁 사안 등에서 활발하게 자문하는 법무법인 넥서스와 **세종 출신의 이성훈 변호사가 지휘하는 KL 파트너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인 텐센트의 한국투자를 이끈 법무법인 세한, 안식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있는 한결, 김·장·리 시절부터 높은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는 양현 등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스타트업 붐과 함께 이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발빠른 자문을 표방한 리엔파트너스, 세움 등 스타트업 로펌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 이승재 변호사가 이끄는 리엔파트너스는 독일변호사도 가세해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도 가동하고 있다.

KL 파트너스는 올해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인수, 유니온의 쌍용머티리얼 인수, KTB PE의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JKL 파트너스의 여기어때 및 카스텔마작 투자, 오케스트라 PE의 마루팡 인수 등의 거래를 수행했다. 이성훈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유수의 Private Equity들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M&A 업무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특히 최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매수권, 공동매각권(Drag along right) 행사처럼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ALB Korea Law Awards 2017’에서 중소 로펌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Dealmaker of the Year’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임석진, 제갈민정 미국변호사와 함께 캐런정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한 M&A팀에선 국내외 법인을 대리한 활발한 투자유치와 함께 자동차부품사, 서비스 기업 등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 인수, 합작투자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진출 대상국도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으로 다양하다. 또 다수의 국내외의 스타트업 기업 자문을 맡아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정거래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의 활발한 법집행과 함께 일선 기업들의 대응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공정거래 분야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공정위는 실제로 지난 3월 총수 있는 기업집단 대상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5~9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점검(5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 점검(5월), 전 산업 대상 대리점 실태조사(8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하였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10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및 조사

“

공정거래 사건 리그테이블
대형로펌들이 대기업 독차지
‘공정거래시장 불공정’ 지적 불구
경제분석 등에 많은 인력 필요

”

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 앞으로 기업집단국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부당지원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위 갑을관계 해소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공기업과의 거래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와 사건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집단국 신설 주목

기업의 수호천사를 표방하는 공정거래 사건의 리그테이블은 대형로펌들이 대기업 사건을 거의 독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이를 두고 중소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 시장이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꼬집기도 했으나, 사건에 따라서는 복잡한 경제분석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자문의 속성상 대형로펌이 선호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제기된 공정위 상대 불복소송 중 사건을 가장 많이 맡은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어 김앤장, 율촌, 세종, 화우, 광장의 순서로 사건을 많이 수행했다. 또 바른, 에이펙스, KCL, 대륙아주, 지평도 ‘빅 6’에

공정거래

Band 1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Band 2	대륙아주, 바른, 에이펙스, 지평, KCL
Band 3	가을, 강호, 덕민, 로텍, 민주, 불, 신아, 위민, 이제, 준경, 지음, 충정, 티와이앤파트너스, 한결

최정목 미국변호사가 활발하며, 금융 쪽은 이행규 변호사와 함께 강을리, 심희정, 최진숙, 윤영규, 이승현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한결, NPL 자문 활발

김인진 변호사 등이 포진한 한결 금융팀은 도산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NPL 시장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NPL 매각자문사 역할 수행에 이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화인자산관리 등 NPL의 주요 인수자들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또 김광중 변호사는 한솔신탁 분식회계 사건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어음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연기금과 보험회사, 펀드 등 15개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임희택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종재, 김재홍, 이영선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KCL 금융팀은 특히 Fund의 설립과 Fund 투자와 관련한 자문이 유명하다. 올해도 이연제 약에 대한 투자, 자동차부품회사에 대한 투자,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 사조동아원에 대한 투자, 반도체업체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개의 펀드 투자를 이끌었으며, 미래에셋네이버의 신성장 Fund 설립 및 투자, 미래에셋GS리테일의 Fund 설립 및 투자, 미래에셋셀트리온의 Fund 설립 및 투자 등이 모두 KCL 변호사들의 손을 거쳤다.

송창영, 이성환, 이제혁 변호사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를 거쳐 김앤장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김시목 변호사가 활약하는 세한 금융팀에선 올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 회사(REITs AMC)인 신한리츠운용을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출범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분야의 첫 사례로, 세한 부동산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승인, 국토교통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냈다.

국제중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국제중재 등 크로스

국제중재

Band 1	김앤장, 태평양
Band 2	광장, 세종, 울촌, 지평, KL 파트너스, 화우

보더 분쟁이 증가하고 분쟁지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중재지라고 할 수 있는 런던, 파리,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중재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관련 분쟁이 많은 중동과 남미, 중국,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북유럽 등 전 세계에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용적으로는 IP, 스포츠 등 전통적으로 중재가 많지 않던 영역까지 중재사건이 다변화되고 있다.

제3국 출신 변호사들 속속 보강

주요 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선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 출신 변호사들을 속속 보강하고, 해당 지역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로펌들이 주카운셀(lead counsel)이 되어 현지의 변호사와 로펌을 지휘하며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는 고무적인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중재 분야는 또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영미 로펌을 포함, 외국 로펌들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려는 분야로,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사이의 경쟁과 협력이 함께 집중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 메이저 로펌과 함께 김범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제중재 부티크인 KL 파트너스 등이 이 분야의 주요 로펌으로 소개된다.

법무법인 지평도 한국 의료기업을 대리해 중국 기업과의 HKIAC 중재에서 승소하고,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영국계 다국적 기업 및 이 기업을 대리하는 대형 영국계 로펌을 상대로 한 ICC 건설중재에서 국내 주요 건설업체를 단독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등 국제중재 업무가 활기를 띠고 있다. 김진희 미국변호사와 함께 이쪽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김지홍 변호사는 “다수의 KCAB 중재에서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동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 기업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가 실시한 사내변호사 상대 설문조사에선 김앤장과 태평양이 똑같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